

함 예수님께서 예비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비신자 입교식: 3월 3일(주일) 교중 미사 중

전례 및 성사

재의 수요일 예식
- 날짜: 3월 6일(수)
- 재의예식: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30분 미사 중
*** 재의 수요일은 금식/금욕 하는 날입니다.***

유아세례 부모 교육일정
- 교육날짜: 2차 (3월 6일), 3차 (3월 20일) 수요일
- 시간: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미카엘방 (사무실 옆)
- 세례 예정일: 3월 30일(토) 오후 1시

첫 영성체 일정
- 자모회 미팅: 3월 9일(토) 오후 1시 30분 가브리엘 방
- OT: 3월 16일(토) 오후 1시 30분 가브리엘 방

성체강복
- 일시: 3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 일시: 3월 10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성당

선발예식
- 일시: 3월 10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출발
- 장소: St Mary's 주교좌 성당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오후 미사 후

주일학교 및 청년

주일학교 교사 입명식
- 일시: 3월 3일(주일) 교중 미사 중

아미쿠스 참회예절 찬미/악기/울동 봉사자 모집
- 참회예절 일시: 2019년 4월 6일(토)
- 모집기간: 3월 9일 토요일 까지
- 연락처: 0444 577 579 (김선욱 바오로)

시드니 한인 성당 청년 축구대회 - Amicus Cup 2019
- 일시: 3월 10일(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Inside Out Football)
- 장소: Rod Laver Dr. Sydney Olympic Park NSW 2127
- 참가비: \$10 (Mens and Mixed Teams)
- 문의: 송민상 프란치스코 (0430 003 273/amicuskcc@gmail.com)

사목회 및 교육모임

사순특강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루카 17.21
- 사순 제 1주일: 3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주제: 고통 안아주기
- 사순 제 2주일: 3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주제: 예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
- 사순 제 5주일: 4월 07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시 30분
주제: 안아주는 마음의 말

알림 및 협조

연령회 정기총회
- 일시: 3월 3일(주일) 교중 미사 후 12시
- 장소: 성당

4구역 야유회
- 일시: 3월 3일(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DEAKIN PARK

울뜨레아 회합변경
- 일시: 3월 17일(주일)
***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관계로 회합일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단체모임
- 3월 3일(주일) 전례분과, 연령회, ME
- 3월 9일(토) 성모회, 꼬미시움, 사회복지, 해외선교
- 3월 10일(주일) 쌍푸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독서단
- 3월 16일(토) 꾸리아, 현화회
- 3월 17일(주일) 글로리아, 홀리패밀리

시드니 한인 가톨릭 골프회 3월 월례모임
- 일시: 3월 12일(화) 오전10시 30분
- 문의: 총무 이선배 안토니오 0402 104 064
최수자 소피아 0414 328 699

선종
- 선종하신 고 최명기 요셉의 명복과 유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건관 감실봉헌 금금
- 연령회: \$5,000
- 고 고명춘 마리아 유가족: \$1,000

다음 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3월 10일) 최상엽 베드로, 백범수 프란치스코, 김덕중 울리오, 송찬용 요한, 조준환 야고보, 장병일 엘리자오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드니 한인 가톨릭 주보

주임신부: 광승룡 비오
보좌신부: 김경수 바오로, 김재준 알베르토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이미영 베르타, 김영애 켈마
최미란 님미아
사목회장: 이성복 요셉

한국 순교자와 성 스타니슬라오 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사목지표

하느님과 일치하는

신앙생활

“자기 자신 안에 계시는 하느님 만나기.”
“Meet God Within You”

매일 강론

facebook.com/frpiuskwak

미사 시간 안내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6:30 am

8:3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마음에 있는 보석



그림: 피터 브뤼겔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루카6,39)

16세기 화가 피터 브뤼겔(Peter Bruegel)의 한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한 소경이 다른 소경들을 인도하는 장면이다. 플랑드르파(플라밍고) 화가인 그는 단순히 기쁨에 찬 미학만이 아니라 ‘이상한 장면’(?)을 담아내는 걸 좋아했다. 곧 세상의 비극적인 시선을 담아낸 그의 그림이 해학적이고 아이러니칼한 인간의 우둔함을 표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스운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건 아니었다. 그의 그림들은 복새통을 처가며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 들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성미 급한 자들에게 그랬다. 여기저기 큰 혼란을 일으키고 서로서로 부딪히며 사람들에게 그의 그림은 인기가 참 많았다.

북유럽의 언어로 브뤼겔(Bruegel)이라는 그의 이름은 참으로 혼돈, 무질서, 소음이라는 뜻이 돼버렸다. 위의 그림 뜻지않은 작은 다른 장면들이 그의 그림에 많았다. 브뤼겔은 허름하고 몰락해가는 지역에서 살았다.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그의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작열하는 시선으로 시골의 작은 농부들 무리 가운데 7개의 신비로운 설교가의 그림들도 있다. 그러나 이 설교가들은 광신자들과 소경들의 청중을 향해서 서로 섞여 있는 부분별한 모양으로 말하고 있다. 브뤼겔의 그림들은 오늘날에도 현실적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적용해 생각하고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루카6,42)

소경은 다양한 원인의 병원을 가지고 있다. 태생 소경이 있고 불행히도 후천적인 소경도 있다. 하지만 복음은 비유로 말한다. 우리 정신과 내적인 눈이 영혼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곧 내 시선, 내면의 눈은 영혼과 마음의 구원을 걱정해야 한다. 창조주 하느님은 이를 위해 특별한 인식,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지만 영성가들은 경고한다. 악마도 역시 그렇게 한다고... 예를 들어 다른 이들의 결점들을 우리는 교정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다. 우리는 이것들에 관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아주 티끌 만한 나의 작은 것을 보고 나의 빙산의 일각을 보고 소설을 쓴다. 우리는 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지만 제대로 보는 식별의 능력을 수련할 시간은 있어야 한다. 성인들도 비슷한 유혹에 빠지곤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의 운명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요한 21,22)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루카6,41)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 하는 이웃 형제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이기주의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만이 아니라 가까운 자의 완전함을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차리더라도 잘 표현하고 말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양심에서 출발하고, 그 유비, 곧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를 알아차려야 한다고...

내가 한 예술가의 찬양을 위해 음악적인 귀를 가져야 하고, 한 화가를 평가하기 위해 나는 예술가의 감각을 가져야 한다. 다른 자의 결함을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결함과 죄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교정하는 더 나은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루카6,45) 좋은 생각들은 마음의 저금통 안에 있는 숨겨 둔 동전들과 같은 것이다. 각자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꺼내어 상대방과 나누는 즐겁고 기쁜 한 주일이 되길 주님은 초대하신다.

주임신부 광 승 룡 비오

전례성가 / 화답송

전례성가: 입당: 280 봉헌: 211, 212 성체: 175, 182 파견: 281

제 1독서: 집회 27,4-7 제 2독서: 1코린 15,54-58 복음: 루카 6,39-45



주님 -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주일 봉사 ■ 3, 10/3 11구역 ■ 17, 24/3 12구역 ■ 31/3, 7/4 1구역 ■ 14, 21/4 2구역

얼큰 소고기 무우국 9구역

사무실	수, 목: 09:00 - 15:00 / 18:30 - 20:30 금: 09:00 - 15:00	봉헌금	교무금	기타	미사 참례수
업무시간	토: 09:00 - 13:00 / 16: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1,959.95	\$21,005.75	\$900.00	2,246

이미영 베르타 원장 수녀님과 최미란 님미아 수녀님 환영 미사



24일(주일) 오전 8시 30분 미사와 교중 미사 중 지난 2월 21일(목) 도착하신 제11대 이미영 베르타 원장 수녀님과 최미란 님미아 수녀님의 환영식이 있었다.

부활판공 일정 및 장소

구역	일자/시간	주소
2	3/15 (금) 18:00	최 병훈 요셉 0414 294 580 13A Ada Ave. STRATHFIELD
5	3/16 (토) 17:30	신 이정 레베카 0401 282 626 101 Bowden St. RYDE
11	3/22 (금) 18:30	공 근택 프란치스코 0452 447 210 42 Bel Air Dr. KELLYVILLE
12	3/23 (토) 18:00	장 철 토마스 0404 109 133 1 Fernhill Ave. EPPING
3	3/29 (금) 18:00	이 성자 아네스 0411 679 170 7 James St. FIVE DOCK
9	3/30 (토) 18:00	이 명자 마르타 0411 410 111 16 Gibbons St. OATLANDS
1	3/31 (일) 17:00	오 혜영 에스더 0416 100 499 56 Rawson St. LIDCOMBE
4	4/5 (금) 18:00	박 성경 안젤라 0433 002 131 199 Epping Rd. MARSFIELD
10	4/6 (토) 17:30	최 호영 베드로 0425 898 190 70 Fitzwilliam Rd. TOONGABBIE
6	4/7 (일) 17:00	이 입분 플로라 0411 661 038 21 Schofield Ave. EARLWOOD
7	4/12 (금) 18:30	이 정자 수산나 0435 869 833 43 Cecilia St. BELMORE
8	4/13 (토) 18:00	김 혜숙 로사 0421 572 655 84A Cambridge St. PENSHURST

교리상식 - 천주교? 기독교?



사진: 김옥순 수녀님 성화 (승리하신 그리스도)

천주교? 기독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를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당에 다닙니다.' 혹은 '천주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반면 개신교 사람들은 '교회에 다닙니다.'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우리는 종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개신교'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걸까요?

먼저 기독교(基督敎)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 하기 전에 '그리스도교'라는 단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종교가 곧 그리스도교(Christianity)입니다. 즉, 가톨릭을 포함한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 등이 모두 그리스도교가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한국 혹은 아시아에서 생겨난 종교가 아닙니다. 서양에서부터 전해 온 신앙입니다. 서양에서부터 전해져 올 때 용어나 단어를 번역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단어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우리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있었지요. 그렇게 그리스도(Christ)를 한자로 음차한 것이 기독교(基督)입니다. 마치 프랑스를 불란서(佛蘭西)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한자로는 기독교라고 표기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보다 포괄적인 단어인 반면, 개신교는 16세기 이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생겨난 교회들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묵은 것을 새롭게 고친다는 뜻의 개신(改新)은 Protestant라고 하는 단어랑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은 Catholica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구원에 있어서 보편성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가톨릭은 하늘에 계신분을 신(神)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을 부를 때 하느님(하늘+님)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개념이 처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올 때 '天'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칭 성리학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신을 칭하게 될까봐 천(天)이라는 단어 뒤에 주(主)자를 덧붙이게 됩니다. 하느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부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한자로 천주(天主)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 종교를 천주교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용어 개념이 조금 복잡하고 다양해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실은 역사 안에서 먼 곳까지 신앙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있는 흔적입니다. 우리 종교에 대해 소개할 때, 그 의미를 한번쯤 되새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김재준 알베르토 신부

다해 사순 제1주일 / 루카 4,1-13(3월)

질문

주제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3)
▶ 주님은 사랑 없는 기적을 만드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랑 없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행동일까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7)
▶ 주님은 비굴하게 경배하라는 악마의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비굴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9)
▶ 주님은 허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허영을 부리려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12)
▶ 혹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아서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그 외 성경구절
위 성경구절 외에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 혹은 느낌은 무엇입니까?)

3월 활동토의(제시문)

1. 자기과시, 탐욕, 허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기
2. 2019년 사목지표를 읽고 매주 자기점검(self-checking) 하기 본당의 사목자들과 수도자들에게 신앙생활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소공동체 반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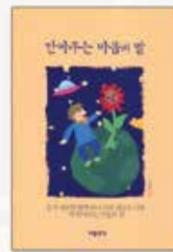
2월 11일(월) 7 구역 7반

2월 8일(금) 10 구역 4반

2월 16일(토) 5 구역 6반

2월 8일(금) 7 구역 6반 & 7반

좋은책 - 안아주는 마음의 말



『안아주는 마음의 말』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하는 마음과 영혼의 말이 나와 우리를 안아 줄 것을 희망하는 선물입니다.

‘물지마 폭행’과 ‘악성 댓글’, ‘갑질 문화’ 등 우리사회는 공격적인 언행에 상처받고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 이웃을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안아줘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는 없을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이들을 안아 줄 수는 없을까?

20여 년간 신학교 강단에 서며 다양한 신학과 영성 서적을 통해 신자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신학과 인생의 고민을 상담해온 광승룡 신부가 이에 대한 해답을 내 냈다. 바로 『안아주는 마음의 말』을 통해서다.

광 신부는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면서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안아주기보다는 찌르고, 판단하고, 지적하게 돼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주는 마음의 말』에서 광 신부는 말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광 신부는 “안아주는 말은 영혼의 말”이라면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영혼을 담아야 진정으로 안아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 신부는 책 서문에서 “때론 단순한 한 마디 말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기도 하지만, 마음에 흠집을 내기도 하는 아픈 전쟁이 되기도 한다”며 “매일 하는 말의 깊이에 무엇이 있나 궁금했다”고 말합니다.

광 신부는 또 “말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마음과 생각이 있다”며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하는 마음과 영혼의 말이 나와 우리를 안아줄 것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광승룡 신부, 출판: 기쁜소식
출처: www.catholictimes.org

사랑의 중식 봉사 - 성모회

소고기 미역국



동서유통 한국 택배 전문 업체
* 호주산 소고기 선물세트 · 와인
* 경조사용 꽃바구니 · 와인 · 케익
9750 2694 / 0425 213 503 dongseoyutong

시드니부동산 Sydney Nationwide Realty
Shop 207, 62-80 Rowe St Eastwood (알디 센터 내)
정현배 (보나 벤투라) 0410 546 506
김진웅 (야고보) 0416 000 534

부업가구 · 일반가구 · 인테리어 · 주문제작공장 직영
TOTAL KITCHEN
MOBILE: 0414.654.077 PHONE: 02.9737.9033
E-MAIL ADDRESS: TOTAL.KITCHEN@HOTMAIL.COM
ADDRESS: 67-69 DERBY ST SILVERWATER

D&Y 미니 포크레인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 가능
Footing / Trench / Auger / Post hole / Hammer
평탄작업 / Grass & Stumps 제거 / Tree Planting
0413 389 357

웨스트라이드 바이오포톤
PDP 생육광선
등 사우나 \$35

Cafe Carnarvon 카페 & 레스토랑
Open 7 days
Mon - Fri 6am - 2pm, 5pm - 9pm
Weekends 8am - 2pm, 5pm - 9pm
52 Carnarvon St, Silverwater
0433 085 653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시드니 전지역 판매
크리스토퍼 조항민 0418 206 007 (7days)
사무실: Lidcombe / Seven Hills

Miracle Finance
주택용자 · 재용자 · 상업건물 용자
고준서 0408 815 816
austarko@hotmail.com

지문을 알면 미래가 보이고, 성격을 알면 교육이 보인다!
MIRACLE MAKER EDUCATION CONSULTANCY
대표 최모사 0426-908-282

한진운송 HB
최다차량 보유 8대
국내/해외 전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RUHENS 루헨스
직수 직수 직수
직수형 정수기
https://youtu.be/gccxPPuCOV8
다이아몬드 거산 정수기
M 0416 1004 99 T 9643 9999

McGrath
James Jin 제임스 진
Lidcombe Real Estate Agents
0404 071 060
jamesjin@mcgrath.com.au

HANSUNG 한성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이한승
시드니 대학교 상대 졸업 (회계학과)
0403 737 487 / info@hansung.com.au

BETTER REALTY
Harry Park
0419 030 826
좋은부동산

유학 이민 MKL SYDNEY
학교 상담
비자 상담
T. 0420 200 303 MKLSydney

AIR CONDITIONING AND ELECTRICAL
JUSTIN COOL
전문 에어컨 전문가
0411 169 320